

관광투자유치 월간동향

<http://kto.visitkorea.or.kr/kor/biz/invest.kto>

05월 주요 이슈

■ 광역시 및 각 지역 신규 추진사업 현황

-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등 지역개발사업 공모...내달 30일까지
- 영종국제도시, '무의LK' 환경영향평가 통과...내년 착공
- 서울시, 한강변 공간 재편 본격 추진...공간구상 용역 공고
- 부산시, 오시리아관광단지에 고급 휴양형 시설 속속 건립
- 산림청,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착수
- 포항시, 앞바다 한눈에 보이는 환호공원에 특급호텔 유치



05월 관광투자 동향분석과 향후 전망

공공부문

■ 지역관광산업 침체에 대응한 지역명소 조성 활발

- 코로나-19, 지방소멸, 도심공동화 등으로 인한 지방의 관광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도, 주민 주도의 관광명소를 각지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동해시는 이달 중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시내 천곡동 일원에 활력 증진과 생활·관광인프라 개선을 위한 천곡 도심 빛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임. 테마파크에는 자연과 빛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린이 체험시설을 비롯해 산책로, 실감미디어, 특화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시는 새로운 힐링·문화 공간인 천곡 도심 빛 테마파크 조성으로 천곡지역이 동해안권 도심관광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함
- 화천군은 간동면 일대에 '복합힐링타운'을 조성한다고 알리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 제정사업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 120억원 등 사업비 총 152억원을 확보함. 이에 따라 화천군은 간동면 일대에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나섬. 화천역 건립과 화천읍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403호선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면 물류와 산업, 귀농·귀촌, 관광 등 복합기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개최 당시 올림픽 메달플라자로 사용했던 평창군 횡계리 일원 5만8천835㎡에 245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평화센터와 광장, 공원을 조성할 예정임. 도는 오는 9월께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착공해 2023년 말 준공할 계획임. 도 관계자는 "평화테마파크가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평화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냄

민간부문

■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민간투자유치 사업 활기

- 몇몇 해안도시에서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민간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 내 무의LK 개발사업이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3일 밝힘. 무의LK 개발사업은 그랜드개발(주)가 인천시 중구 무의동 일대 124만㎡에 고급 풀빌라·컨벤션·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올해 교통·재해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임. 인천 실미도 해수욕장 일대 44만㎡에 레저·휴양기능을 갖춘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무의솔레이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은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고 알림
- 전남도는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1만 실 규모인 도내 호텔 리조트 숙박시설을 1만7천 실 규모로 늘릴 계획이라고 19일 밝힘. 여수챌린저파크 관광단지 등 6곳 1천9광단지 등 5곳에 대해 신규 조성계획을 마련해 총 3조 5천900억 원의 투자로 모두 6천986실을 새로 조성함. 도 관계자는 "전남의 부족한 명품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호텔, 풀빌라 등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속하겠다"고 말함
- 경남도는 거제 장목관광단지를 포함한 전라프로젝트 사업 개발사업자 공모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사로 구성된 JMTC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힘. JMTC컨소시엄은 경남도의 힐링 주제 방향에 부합되도록 자연과 어우러진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관광단지 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연계하고, 단지 전체에 예술·문화 콘텐츠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News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등 지역개발사업 공모...내달 30일까지

- 지방 낙후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지역 활성화 거점 발굴·조성 등 목적
- 국토교통부는 지방 낙후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 거점을 발굴·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2022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힘
-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인구·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수요맞춤지원과 투자선도지구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하는 사업임
- 투자선도지구는 교통·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 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임
-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임
- 사업 희망 지자체는 지역개발 통합모니터링시스템(rdims.lh.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물막이 끝...내년 6월 매립도 마무리

- 1천300억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부지 매립을 마무리할 계획
-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날 수면 아래부터 사석을 쌓아 올려 10.46km 길이 제방을 만드는 수변도시 물막이 공정이 끝남
- 2020년 11월 착공한 지 1년여 만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제방이 완공됨에 따라 1천300억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부지 매립을 마무리할 계획임
- 이후 2024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해 6.6km² 부지에 인구 2만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 구상임
- 바다를 메워 만드는 이 도시는 주거와 상업, 산업, 업무,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기능을 하게 될 예정임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수·친환경·스마트 시티라는 3대 특성을 가진 자족형 도시"라면서 "도시가 조성되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냄



서울시, 한강변 공간 재편 본격 추진...공간구상 용역 공고

- 수변공간 활성화 등 한강 중심 도시공간 구현 전략 마련
- 서울시는 수변 중심 공간구조를 조성하고, 서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강변 공간 재편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힘
- 시는 지난 9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6월중 용역에 착수할 계획임
- 시는 작년 발표한 '서울비전 2030'에 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역점정책의 하나로 수변 중심공간 재편을 제시했음.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수변공간을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임
-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여의도·용산, 성수·잠실, 마곡·상암 등 한강변 주요 거점 간 연계·통합 방안을 구상하고, 주요 거점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변 거점 조성 방안을 주요 정비사업과 연계해 검토할 예정임
- 또한 한강을 활용한 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교통수단 운영, 수상교통 기반 구축 등 교통 인프라 마련과 함께 시민 여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녹지생태도심 연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착착'...기본구상 용역 착수

- 산림청, 2030년까지 거제시에 조성
- 경남도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6억3천만 명의 인구 규모인 동남아시아 10개국 국가연합 아세안과 우리나라가 경제·사회·문화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인 한·아세안 출범을 기념하기 위함임
-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열대우림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열대식물을 전시할 계획이며, 2천억원 이상이 투입돼 정원산업 발전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주목받을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함



■ 화천군, 간동면에 '복합힐링타운' 추진...지방소멸 대응

- 동서고속화철도 화천역세권 배후단지..거점 역할 기대
- 화천군은 최근 강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 계정사업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 120억원 등 사업비 총 152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힘
- 이에 따라 화천군은 간동면 일대에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며, 역세권 인근 군유지에 전역 군인, 은퇴자, 청년 등을 위한 귀농·귀촌인의 자립형 주거타운을 조성할 예정임
- 이를 통해 춘천 등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민간부문 투자동향 News

■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시작..."문화·관광타운 조성"

- 삼표레미콘 공장 일대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
-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이 이달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힘
- 삼표산업은 레미콘 필수 가동시설 철거를 시작으로 배치플랜트 5호기 전체 시설을 이번 주말까지 철거하고, 나머지 1~4호기는 당초 약속대로 다음 달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임
-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는 성수동 서울숲, 한강 변과 인접해 있는 등 최적의 입지로 인해 개발이 기대되며, 구는 이 일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함
- 최근 발표한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비롯해 서울숲 내 승마훈련원, 방문자센터 등 이용이 적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한강·중랑천 등 지역자원과 연계함으로써 과학미래관, 오페라하우스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관광 랜드마크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임



■ 파주시,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자 3차 공모

-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3차 공모 계획
- 파주시는 첨단 산업단지인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3차 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힘
- 운정테크노밸리는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2026년까지 연다산동 일원에 47만3천㎡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차세대 산업단지임
- 파주시 관계자는 "사업이 늦어진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고급 휴양형 시설 속속 건립

-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착공, 아난티 친환경 리조트 내년 개관 / 롯데호텔은 고령화 시대 맞춰 고급 실버타운 조성
- 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고급 휴양형 시설이 잇따라 건립되고 있음
- 8일 부산도시공사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이 지난달 29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함
- 4만1천280㎡ 부지에 조성되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은 지하 3층 지상 12층에 195개 객실로 꾸며지며, 실내외 온천 등 고급 휴양시설과 갤러리, 태국 레스토랑(사프란), 레스토랑 루프톱 바(버티고) 등이 들어설 예정임
-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아난티 코브'를 운영 중인 아난티는 친환경 리조트 '빌라쥬 드 아난티'를 내년에 선보임. '빌라쥬 드 아난티'는 아난티 코브의 배 규모인 16만㎡(4만8천400평) 면적에 야외수영장과 우아한 정원을 갖춘 단독 빌라, 천연 온천수를 갖춘 펜트하우스, 호텔 등 숙박시설(390객실)이 들어섬
- 오시리아 메디타운 부지에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실버산업에 진출한 롯데호텔과 시행사 썬시티가 손잡고 특급호텔 같은 실버타운을 조성할 예정임



■ 거제 장목관광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 JMTC컨소시엄 선정

-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25년 동안 개발 지연
- 경남도는 산업·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장목관광단지를 포함한 전략프로젝트 사업 개발사업자 공모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사로 구성된 JMTC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힘
- JMTC컨소시엄은 경남도의 힐링 주제 방향에 부합되도록 자연과 어우러진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관광단지 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연계하고, 단지 전체에 예술·문화 콘텐츠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경남도는 관광, 금융,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JMTC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경남도 관계자는 "거제 장목면 일대 125만㎡ 부지를 천혜의 자연환경에 문화와 예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고품격 힐링 관광단지로 개발해 인근 구산해양관광단지 및 마산 로봇랜드와 연계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힘



■ 보령시, 원산도 등 5개 섬에 1조1천345억 들여 관광인프라 확충

- 2030년까지 리조트·해상케이블카 등 설치... '서해안 관광 허브 도시로'
- 충남 보령시는 서해안 관광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원산도를 중심으로 인근 5개 섬에 1조1천345억원을 들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1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힘
- 시는 원산도에 민자 7천604억원이 들어가는 서해안 최대규모 관광단지인 '대명소노 리조트'를 조성하고, 1천590억원을 들여 해양 레포츠센터·헬스케어 복합단지과 복합 마리나항 건설, 갯벌 생태계 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 국내 처음으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해상케이블카도 설치해 원산도와 삼시도를 연결할 계획이며, 이 사업에는 민자 1천억원이 투입됨
- 시는 600억원을 투자해 삼시도와 효자도, 장고도, 고대도 각 섬에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바다역을 개발하고, 문화인프라 확대를 위한 섬 국제 비엔날레도 유치할 예정임
-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 후 많은 관광객이 원산도를 비롯한 보령의 섬을 찾고 있다"며 "천혜의 관광자원인 섬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서해안 관광 허브로 우뚝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2022년 관광동향 분석 (2022년 0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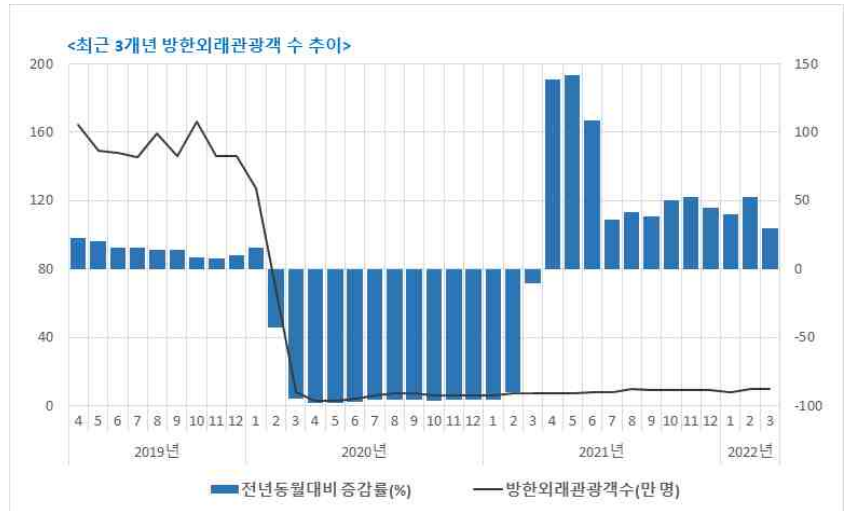
방한외래관광객

▶ 3월 방한외래관광객 96,768명, 전년동월(74,604명) 대비 29.7% 증가

(단위 : 명, %)

구분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6년	17,241,823	30.3
2017년	13,335,758	-22.7
2018년	15,346,879	15.1
2019년	17,502,756	14.0
2020년	2,519,118	-85.6
2021년	967,003	-61.6
'22년 03월	96,768	29.7
2022년	278,618	-71.2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단위: 천 명, %)

주요 국가별 동향

- 일본관광객 1,397명 (47.2% 증가)
- 중국관광객 14,726명 (-22.4% 감소)
- 미국관광객 16,968명 (37.7% 증가)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홍콩	러시아
2016년	2,298(25.0)	8,068(34.8)	866(12.8)	833(60.8)	651(24.3)	234(24.4)
2017년	2,311(0.6)	4,169(-48.3)	869(0.3)	926(11.1)	658(1.1)	270(15.6)
2018년	2,949(27.6)	4,790(14.9)	968(11.4)	1,115(20.5)	684(3.9)	303(11.9)
2019년	3,272(11.0)	6,023(25.8)	1,044(7.9)	1,260(13.0)	695(1.6)	343(13.4)
2020년	431(-86.8)	686(-88.6)	220(-78.9)	167(-86.8)	89(-87.2)	73(-78.7)
2021년	15(-96.5)	170(-75.2)	204(-7.4)	4(-97.5)	1(-98.6)	33(-55.0)
'22년 03월	1(47.2)	15(-22.4)	17(37.7)	0.4(25.8)	0.2(68.5)	2(-2.9)
2022년	5(-64.0)	41(-75.9)	48(-76.3)	2(-61.8)	0.5(-60.4)	9(-73.7)

주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단위: 천 명, %)

주요 대륙별 동향

- 아시아주 56,000명 (22.1% 증가)
- 미주 20,390명 (43.7% 증가)

구분	아시아주	중동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주
2016년	14,464(33.9)	194(15.0)	1,116(14.6)	943(16.9)	191(13.4)	57(28.8)
2017년	10,557(-27.0)	218(12.4)	1,117(0.1)	936(-0.7)	190(-0.5)	49(-14.0)
2018년	12,364(17.1)	238(9.3)	1,243(11.3)	1,004(7.2)	193(2.0)	54(8.9)
2019년	14,338(16.0)	253(6.3)	1,346(8.3)	1,095(9.1)	218(12.7)	60(12.2)
2020년	1,918(-86.6)	43(-82.9)	271(-79.8)	215(-80.4)	30(-86.0)	14(-76.1)
2021년	510(-73.4)	37(-14.7)	242(-10.9)	147(-31.4)	6(-81.7)	12(-15.9)
'22년 03월	56(22.1)	4(45.0)	20(43.7)	13(31.6)	1(226.5)	1(68.3)
2022년	155(-69.7)	10(-71.8)	60(-75.2)	44(-70.3)	3(-51.5)	4(-66.0)

주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국민해외관광객

▶ 3월 국민해외관광객 145,503명, 전년동월(73,999명) 대비 96.6% 증가

(단위 : 명, %)

구분	국민해외관광객	증감률
2016년	22,383,190	15.9
2017년	26,496,447	18.4
2018년	28,695,983	8.3
2019년	28,714,247	0.1
2020년	4,276,006	-85.1
2021년	1,222,541	-71.4
'22년 03월	145,503	96.6
2022년	405,659	-66.8

주 : 증감률은 전년동월(기) 대비



■ 한국관광수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관광수입		1인당 관광수입(\$) ¹⁾	관광지출		1인당 관광지출(\$) ¹⁾	관광수지
2016년	16,754	(14.2)	972	23,689	(10.0)	1,058	-6,935
2017년	13,264	(-20.8)	995	27,960	(18.0)	1,055	-14,696
2018년	18,462	(39.2)	1,203	31,528	(12.8)	1,099	-13,066
2019년	21,506	(12.4)	1,185	29,261	(-7.2)	1,019	-7,349
2020년	10,181	(-50.9)	4,042	13,356	(-54.4)	3,124	-3,175
2021년 ^P	10,282	(1)	10,633	13,851	(3.7)	11,330	-3,569
'22년 03월^P	974	(16.9)	10,068	1,278	(23.1)	8,783	-304
2022년 ^P	2,508	(-75.6)	9,022	3,335	(-75.9)	8,318	-827

주 : ()는 전년동월(기) 대비 증감률 / P는 잠정치를 의미

1) 1인당 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1인당 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 해당 관광동향 분석 자료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내 관광객통계/국제관광통계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기재함.